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예술로 밥먹영 살아보게 마썸 (14)

# 문예재단 조직개편 예술인 복지 제자리

1일 10팀 1TFT 체계로 바뀌 정채개발 미래문화팀 신설 서부권·서귀포사무소 설치 일부 부서 인력 부족·미배치 공석 경영실장 재차 파견설

제주문화예술재단 조직이 다시 바뀌었다. '직급 파괴', '직무중심 실무형 수평조직'을 내세우며 직전 2본부 6팀 1TFT를 1일 10팀 1TFT 체계로 개편했다. 지난 5월 취임한 10대 이승택 이사장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14일자 인사를 실시했다.

▶경영기획실 제외한 팀 이사장 직속=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육성 조례엔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예술활동 지원,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문화예술 정보 교류,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순으로 사업을

명시해놓았다. 그럼에도 재단의 행보엔 문화예술정책 개발이 부재했고 코로나 시국을 헤쳐갈 예술인 복지 사업은 한발 늦은 모습이었다.

2001년 4월 설립된 재단은 2년에 한 번꼴로 새로운 이사장이 거쳐갔다. 신입 이사장이 취임하면 인사이드가 따랐고 조직 개편으로 자신의 포부를 드러내려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는 그것이 1일 10팀 1TFT로 나타났다. 본부를 없애면서 경영기획실 3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을 이사장이 직접 관할하는 체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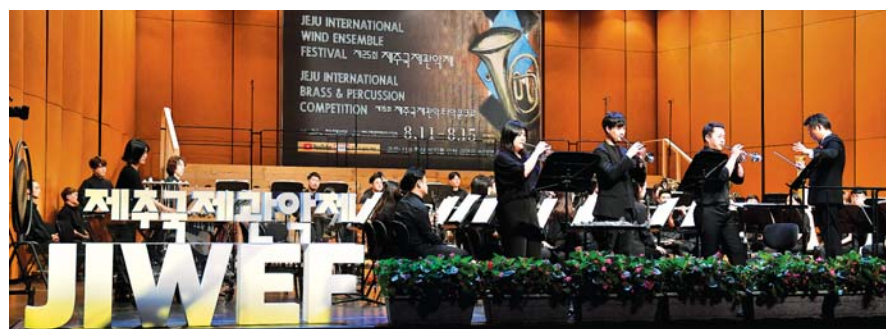
▶"새 이사장 올 때마다 조직 요동치나"-재단은 조직 개편 배경에 대해 문화정책 개발 기능을 맡은 미래문화팀을 신설했고, 지역내 문화불균형 해소와 '문화예술섬 제주' 실현을 취지로 제주서부권사업소와 서귀포사업소TFT를 뒀다고 설명했다. 개원 이래 4급 실무자를 처음 팀장으로 발탁하는 등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했

다는 자평도 덧붙였다. 하지만 일정 예고없이 깜짝 발표가 이루어졌고 음주 문제로 최근 징계 받은 직원을 핵심 부서 팀장에 앉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예술인 복지업무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예술지원팀 인원은 다른 부서와 별반 차이가 없다. 서귀포사무소는 별도 공간이나 인력 없이 출발했다. 첫 경영기획실장은 공석으로 남겨 8월 21일 정기간사를 앞둔 제주도 공무원 파견설이 재차 지퍼지고 있다. 인력이 구명난 팀이 가동되는 탓인지 새 이사장이 올 때마다 조직이 요동쳐야 하느냐는 내부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재단 결원이 6명인 상태에서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경영기획실장은 개방형 공모가 검토된 적은 있지만 공무원 파견 건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지난 15일 경축음악회에서 이현준·김현호·안석영(오른쪽부터)씨가 3개의 트럼펫을 위한 모음곡 '해녀'를 초연하고 있다. 사진=관악제조직위원회 제공

## 객석 박수 없었지만 '젊은 관악' 열정

25회 국제관악제 폐막 5일간 7회 온라인 공연 쿤쿠르 11월 결선 예정

제25회 제주국제관악제가 지난 15일 저녁 제주아트센터에서 8·15경축음악회로 막을 내렸다. 이날 무대의 마지막은 경축음악회 단골 레퍼토리였던 안익태의 '한국환상곡' 대신에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한 '합창'으로 채워졌다.

이번 관악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를 포함 국내 연주자들만 참가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열렸다.

일정이 당초 9일에서 5일로 줄었고 60여 회 잡혔던 공연도 7회로 대폭 축소했다. 관악제 도중인 지난 13일부터 제주도가 공공공연장 개방 확대를 밝혔지만 조직위 측은 운영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대면을 고수했다. 조직위 관계자 등이 객석에 자리했으나 온라인 맞춤형으로 기획된 현장에선 무대 자막을 띄우지 않았고 박수 소리도 내지 않았다.

관람객들은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관악제를 만났다. 회당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자는 100명 안팎이었지만 시·공간 제약 없이 많은 채널의 특성상 누적 조회수는 급세 늘었다.

공연은 단출했지만 '젊은 관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스웨덴 스테판 존슨의 관악제 위촉곡 '3개의 트럼펫을 위한 모음곡 해녀'를 초연한 김현호·안석영·이현준, 금관5중주팀인 '브라스아츠서클'은 제주국제관악콩쿠르가 발전한 보석들이었다. 개막 공연에 올린 관악제 위촉곡인 프랑스 이반 제브티의 '제주 온 더 씨' 등 창작곡도 빛이 났다.

개막에 앞서 제15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 1~2차 예선이 18개국 140명이 참가해 동영상 심사료 치러졌다. 당초 지원서 제출자보다 응시자가 적은 건 동영상 자료 제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결선과 입상자 음악회는 11월로 예정됐다.

조직위는 이번에 사반세기 기록전(8월 8~13일 문예회관), 25년사 발간도 마쳤다. 현을생 조직위원장은 "이제 다시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후의 관악제는 온·오프라인 공연 차별화가 필요해 보인다. 실내 공연 일부는 신예·스타 연주자 등을 초청해 사전예약제와 연계한 유료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 온라인 부문은 위촉 창작곡 연주, 제주 지역 관악단 공연 등 자료 구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선희기자



황기표 박사와 함께하는 한리일보 인문역사 강의

## '품(品)' 모양 세 구멍 삼성혈... 원 명칭 모흥혈

(2)모흥혈(毛興穴)

고려사 고기에 이르기를... 역사지서에 모흥혈 기술 사찬 양·고을나 위치 바뀌 벽랑국은 배필 신비화 의도 삼성신화에 공동번영·평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삼성혈. 원 명칭은 모흥혈이었다.

제주시 이도1동에 삼성혈로 불리는 유적이 있다. 1964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34호로 지정된 이곳의 원 명칭은 모흥혈(毛興穴)이다. 모흥혈을 소개한 사료 중에서 현재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사'(권57, 지리지, 탐라현)다.

'성주교씨가전'(정이오, '동문선' 권101)과 '영주지' 등에도 모흥혈의 삼나 탄생신화가 전해온다.

이들 사료는 제주 교씨의 가첩(家牒) 성격 때문에 사찬문서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기존의 사서와 달리 삼을나의 위치를 바꾸고 있다. 즉 첫째를 양을나가 아닌 고을나로 적었는데 조선 초기 고득종의 부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모든 역사지서나 심지어는 '성주교씨가전'까지 삼공주의 출신국이 일본국으로 되어 있다. '영주지'에만 벽랑국으로 대체되어 있다. 물론 1954년 담수계가 편찬한 '증보탐라지'에는 다시 벽랑국으로 되어 있다. 삼을나의 배필을 신비화하려는 의도로 윤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헌에서 전하는 모흥혈 관련 차이점과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려사'와 '세종실록'은 '제주의 고기에 이르기를(其州古記云)...'이라며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하 제주의 대부분 지리지에는 '고려사 고기에 이르기를(高麗史古記云...)'이라 되어있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의 기록은 앞선 '고려사'의 기록을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탐라의 건국과 관련한 기록은 탐라의 '고기(古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고기'라는 옛 기록은 고려 문종 11년(1057) 고유(高維)의 중서성 우승유(行卷家狀)와 같은 종류의 서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당시 일반적인 간단한 조상 내력을 기재한 고씨 가문의 가첩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 대부분의 역사지서에는 '고려사'와 거의 동일하게 모흥혈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삼성혈로 알려진 것도 있다. 백호 임제의 '남명소승'(1577년 11월 27일)에 삼성혈이란 용어가 처음 보인다. 하지만 임제도 같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흥혈이란 시제로 지었다. 또한 역사지서로 삼성혈이란 용어를 처음 쓴 것은 이원진의 '탐라지'(제주목, 고적)다. 여기에는 삼성혈을 표제어로 삼고 예전의 모흥혈이라 밝히며, '고려사' 고기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원진의 '탐라지'는 제주목 고적에는 다시 표제어가 모흥혈로 되어 있으며, '고려사'의 대목대로 설명하고 있는 점은 같다.

셋째,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1601년 11월 1일),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1635년), 이명준(李明俊)의 '제주목사 사계문'(1786년 6월)은 모흥혈이 '품(品)'이란 글자의 형태로, 즉 세 발췌처럼 구멍이 나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전한다. 구멍이 막혀졌는지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언급됐다. 하지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탐라의 건국과 관련한 기록은 탐라의 '고기(古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고기'라는 옛 기록은 고려 문종 11년(1057) 고유(高維)의 중서성 우승유(行卷家狀)와 같은 종류의 서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당시 일반적인 간단한 조상 내력을 기재한 고씨 가문의 가첩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당당할 듯하다. 1837년(헌종 3) 11월에 도입한 이원달(李源達) 목사는 호기심이 발동해 모흥혈 발굴을 시도했다.

조선시대 들어 모흥혈을 유교의례를 시행하는 사묘로서 성역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담수계의 '증보탐라지'(사묘, 삼성사三姓祠)에 의하면 1526년(중종 21) 목사 이수동(李壽童)이 이곳에 처음으로 단을 마련하고 비를 건립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그 비는 없 어지고 지금의 비는 1856년(철종 7)에 대정현감을 지낸 고성규(高性奎)가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탐라의 시조 탄생은 지신족 계열의 성격으로 우리나라 일반적인 건국신화와 성격을 달리 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족 또는 신비스러운 낭생족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났다는 사실은 그만큼 탐라의 토착세력이 이 땅을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 일본에서 왔다는 제공주와의 만남과 혼인은 외래 세력의 유입을 뜻한다. 나아가 탐라가 북방계 또는 토착계만의 세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해양계와 연합국가적 성격으로 탄생한 것을 웅변하고 있다. 삼을나는 삼공주와의 혼인도 나이순으로 했으며, 자신들이 살 곳도 화살을 쏘아 정했다. 이는 탐라국이 지향하는 기본 이념은 상호간의 공동 번영과 평화 추구라는 점을 알려준다.

\*강의 영상은 한리일보 유튜브 채널(촬영·편집 박세민 기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제주 최초 LG Z:In 창호천시장 오라점 오픈

최고의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 책임시공, 철저한 사후관리를 저희 한진시스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 신축공사(주택, 상가) 맞춤형 창호제안, 설계 지원  
\* 리모델링 공사 상담 환영!!

#### JB 나노방진시스템

1급발암물질 미세먼지 한 번에 당백 두 개(40배)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한 미세먼지 집이나 직장 내에 머무르는 시간은 90% 이상 환기를 안 하면 실외보다 2~5배 오염물질 발생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없음 절대적인 환기시스템 필요

SOLUTION

자연환기가 가능한 JB나노방진필터

당신을 위한 창호 전문 상담

1F: 전시장  
2F: 카페 내부

LG하우시스 제주대리점

시스템창호 · PVC창호 · A·L·유리

제주특별자치 제주 2015-07-05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주)한진시스템**

TEL.711-5169

우정골프연습장

해역사

콘드레점

**(주)한진시스템**